

운영 위원회 회의록

2026년도 제2차

거북마을노인요양원

주제	26년 2분기 운영실적 보고및 평가, 3분기 운영계획보고
회의일시	2026.06.20 토요일 (11:00 ~12:00)
회의장소	1층 프로그램실
회의방법	대면회의
참석자명	김선주(후원자 대표), 김현수(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신선기(시설의 장), 유경형(지역주민), 이수희(시설종사자 대표), 이재희(시설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최기영(시설거주자 대표)
	시설장 신선기 위원 : 26년 2분기 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종사자대표 이수희위원: 제가 미리 보내드린 참고서류를 보시면서 진행하겠습니다. 26년 2분기 실적으로 생신잔치, 원예치료, 참사랑공연, 브레인 실버미술 실버체조등 외부강사및 자원봉사자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께 인지적 기능 유지및 정서적 안정감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진행해야 하는 정기교육 인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종사자및 입소자에게 진행하였으며 매분기 진행해야 하는 정기교육은 3분기에도 마찬가지로 진행할 예정이며 프로그램 활동도 마찬가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4월 4일 토요일에 엘지 디스플레이 자원봉사단체, 사회복지사 실습생, 공익요원, 종사자와 함께 광탄천으로 벚꽃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걷기에도 좋고 사진도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점심도 야외에서 제공하였더니 어르신들이 별미라며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5월 9일 어버이날 기념행사로 모든 어르신, 전 직원, 보호자님(어르신의 18가족)이 다함께 추모공원 4층에서 점심식사 및 다과를 즐기며 은혜에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어르신 전체와 전 직원이 어울려서 기념 단체 사진도 찍어 프로그램실에 걸어놓을 예정입니다. 보호자님과 어르신, 종사자, 자원종사자들이 어수선하게 진행하였지만 흡족해 하셨습니다. 어르신과 보호자님과의 사진을 바로 인화하여 제공하였더니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4월 낙뢰로 인한 1층 주방외부 전압기에 화재가 발생하여 일부분 정전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승강기가 작동되지 않았습니니다. 다행히도 삼성화재배상보험에 가입되어있어서 전기 수리와 승강기 수리부분을 모두 보험처리하였습니다. 3분기에는 삼복으로 삼계탕, 추어탕, 보쌈, 과일(수박, 화채 등)을 제공할 예정이고, 추석명절에는 가족과 보내지 못하므로 자원봉사자와 함께 척사놀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2분기 운영실적과 3분기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실적이나 운영계획에 대한 건의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선주(후원자 대표): 봄 나들이와 어버이날 행사를 진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어르신들과 보호자들이 흡족해 하셨다니 뜻깊은 행사였네요. 이재희위원(시설거주자의 보호자대표): 어버이날 행사에 참여하였는데 정신없고 분주함속에서 어르신들을 케어하시느라 종사자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 어머니와 긴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같이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흡족했습니다. 매년 개최해달라고 요청드리면 무리일까요? 시설종사자대표 이수희위원: 이번에 진행해보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즐거워하시는 어르신과 보호자님들을 위하여 보호자님과 함께 진행하는 어버이날 행사를 매년 개최하도록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재희위원(시설거주자의 보호자대표): 노인학대예방하기 위한 종사자나 입소자에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여도 의식개선이 되지않는 듯합니다. 대소변을 많이 자주 본다고 식사량을 줄인다는 뉴스를 시청한 적이 있으며 귀동냥으로 여기저기서 듣기도 했습니다. 배골이 든든해야 힘이 나는 법인데 식사량을 줄인다니요.

회의내용
(회의록)

저희 기관에서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사자의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종사자 대표 이수희 위원: 네 인권교육이 최고의 학대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종사자에게는 매월 2번씩이상 노인인권체크리스트를 확인할 뿐만아니라 분기별로 노인인권예방교육을 받고 종사자, 입소자 및 보호사께 1달에 한번씩 폭언 폭행에 관한 예방문자를 보내어 노인학대예방을 하고 있으며 반기별로 일년에 2번 정도 우편으로 노인학대 예방 교육자료를 보호자님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재희 위원님, 우편과 문자를 받아보셨지요? 최기영위원장님 기관에서 노인학대예방교육을 받으셨지요?

최기영위원(시설거주자 대표): 네 교육을 받았습니다. 노인학대 예방교육 자료를 보여 주고 설명해주었습니다.

이재희 위원(시설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네 우편으로 기관 활동소식과 함께 노인학대예방자료도 받았습니다. 매달 인권문자도 받았습니다.

김현수 위원: 저번 회의 안건인 사무실 컴퓨터 교체는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시설종사자대표 이수희위원: 네 교체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양을 높여 처리속도면에서 전보다는 빠릅니다 . 사무기기 컴퓨터 2대 교체 완료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선주(후원자 대표): 저번 회의때 장기근속 포상제도에 관해서 논의했는데 어찌 처리하였습니까?

시설종사자 대표 이수희: 전 회의에서 승인된 장기근속 포상 내용과 같이 금값 인상으로 인하여 금 포상금은 제공하지 않고 현금으로 포상하기로 하여 이번 6월에 10년 장기근속자에게 현금 이백만원 통장이체해 드렸습니다. 8월에 10년 장기 근속자 1명, 5년 장기근속자 2명이 있으며 이번에도 현금으로 통장이체 해 드릴 예정입니다.

시설장 신선기 위원: 현재 입소자가 22명이며 종사자(요양보호사)은 10명입니다. 26년도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기관 장기근속대상자에게 근무기간에 따른 차등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서 저희 기관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하는데 저희 기관의 지리적 위치 상 종사자 구인이 어려우므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기관의 장기근속자가 대부분이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근속수당비용이 지출되므로 기관운영에 큰 영향을 줍니다.

시설종사자 대표 이수희: 네 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인건비 비율에 맞추려면 종사자(요양보호사)가 11명이여야 합니다. 인건비 비율에 맞지 않아 다음달 7월 청구에서는 감산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기관의 장점이 종사자의 장기근속이며 사명감이 높고 가족처럼 어르신을 모신다는 점입니다. 인건비 비율에 맞게 급하게 종사자를 구하기보다는 감산 적용이 되어도 좋고 오랜 기간 근무할 종사자로 결정하는게 기관운영과 어르신 케어에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재희위원(시설거주자의 보호자대표): 어르신을 잘 모시고 있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님이 가족처럼 오랜 관계를 유지하며 근속할 수 있도록 수당을 지불하는 규정은 있어야 하며 기관 운영 실정에 맞게 변화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장기근속수당을 지불할 수 밖에 없으며 운영 실정도 고려해야 하므로 기관 운영자가 고뇌에 빠지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기관 운영자가 힘들겠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기업에서도 이처럼 많은 장기근속 수당은 지불하지 않습니다. 5년 10년 근속으로 이 만큼의 장기근속수당을 제공하는 것에 저로서는 감사할 일입니다.

김선주(후원자 대표): 4월에 화재가 난 것처럼 저는 최우선이 안전예방이라고

	생각됩니다. 화재대비와 장마대비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시설종사자 대표 이수희: 네 안전예방이 최우선이죠. 화재가 발생할 경우 기관에서 어르신을 대피하는 신속한 방법이 중앙계단으로 내려오기보다는 산으로 대피하는 피난교가 최우선이라고 생각되어 피난교를 건너 산에 어르신들이 머물수 있도록 대피공간을 4월에 엘리 자원봉사단체 인 주거환경팀에서 정비하였습니다. 장마대비로 작년엔 모래주머니를 만들어 쌓아 놓은 상태이며 재정비가 필요한 상태는 아닙니다. 빗물이 잘 내려갈 수 있도록 배수로를 5월에 엘리 자원봉사단체인 주거환경팀에서 정비하였습니다. 김선주(후원자 대표): 미리 대비하셨군요. 잘 하셨습니다. 화재시 어르신의 대피로는 어떠한가요? 시설종사자 대표 이수희: 2층에 중앙계단, 측면 계단, 피난교로 3개의 자동개폐기가 열리는 피난로가 있으며 3층에는 중앙계단, 피난교로 2개의 자동개폐기가 열리는 피난로가 있으며 엘리베이터 방화문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대부분이 와상이나 준와상으로 혼자서는 걸어서 이동이 불가능하므로 부축과 휠체어로 이동이 가능하므로 계단보다는 피난교로 이동이 신속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와상어르신은 들쳐엮고 이동하기에는 종사자가 여자라 역부족이므로 침대로 싸서 이동하는 방법이 제일 안전하다고 판단되어 피난교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피난교 건너편을 안전한 대피공간 확보가 최우선이라 생각되어 4월에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김선주, 최기영, 김현수 이재희 위원: 아... 피난교로 이동이 제일 안전할 듯 합니다. 정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설장 신선기 위원: 26년 2분기 운영실적 보고, 3분기 운영계획 보고, 장기근속 포상제 보고, 화재 안전 예방에 관한 안건으로 2분기 회의를 마치려 합니다. 혹시 건의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선주 위원, 김현수 위원, 이재희 위원, 이수희 위원, 최기영 위원 : 건의사항없습니다. 시설장 신선기 위원: 그럼 26년 1분기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학대 예방	※ 보고내용 이수희위원(시설종사자 대표): 6월 4일과 5일에 종사자 전체와 입소자 전체를 대상으로 노인인권 보호지침 및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청취내용 이재희위원(시설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노인학대예방하기 위한 종사자나 입소자에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여도 의식개선이 되지않는 듯합니다. 대소변을 많이 자주 본다고 식사량을 줄인다는 뉴스를 시청한 적이 있으며 귀동냥으로 여기저기서 듣기도 했습니다. 배골이 든든해야 힘이 나는 법인데 식사량을 줄인다니요. 저희 기관에서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사자의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종사자 대표 이수희 위원: 네 인권교육이 최고의 학대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종사자에게는 매월 2번씩이상 노인인권체크리스트를 확인 할 뿐만아니라 분기별로 노인인권예방교육을 받고 종사자, 입소자 및 보호사께 1달에 한번씩 폭언 폭행에 관한 예방문자를 보내어 노인학대예방을 하고 있으며 반기별로 일년에 2번 정도 우편으로 노인학대 예방 교육자료를 보호자님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재희 위원님, 우편과 문자를 받아보셨지요? 최기영위원님 기관에서 노인학대예방교육을 받으셨지요? 최기영위원(시설거주자 대표): 네 교육을 받았습니다. 노인학대 예방교육 자료를 보여 주고 설명해주었습니다.

이재희 위원(시설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네 우편으로 기관 활동소식과 함께 노인 학대예방자료도 받았습니다. 매달 문자도 받았습니다.

첨부사진

